국립고궁박물관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S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Overseas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Hopes and Dreams Revealed Inside Restored Paintings



구운몽도 병풍 九雲夢圖 屛風 Cloud Dream of the Nine Folding Screen

조선, 19세기, 면에 채색 (각폭) 150.7×35.8cm (그림) 67.9×31.0cm 포틀랜드미술관 Portland Art Museum

조선시대 문인文人 김만중金萬重(1637~1692년)이 지은 소설『구운몽九雲夢』 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性眞이 팔선녀를 만나 미혹된 죄로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楊少遊로 살아가며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성 진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수도자로서의 본분으로 돌아가 불도 佛道에 정진한다는 소설의 교훈과 더불어, 관료로서 이상적인 삶을 누리는 양소유의 모습처럼 부귀와 복락을 기원하는 길상적인 의미 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육관대사와 재회하다.

9. 부마가 된 양소유, 임금의 동생인 월왕과 낙유원에서 잔치를 즐기다.



8. 백능파를 빼앗긴 남해태자, 양소유를 향해 군사를 일으키다.



7. 남해태자의 구혼을 피해 온

용왕의 딸 백능파와 양소유가 인연을 맺다.



만나는 꿈을 꾸다.



자객 심요연을 맞이하다.



4. 장원 급제한 양소유, 정경패의 계략으로 선녀로 변장한 가춘운을 만나다.



3. 양소유, 정경패를 유혹하기 위해 여장을 한 채 찾아가 거문고를 연주하다.



진채봉을 만나다.

2. 인간 세상에서 환생한 양소유,



1. 승려 성진, 사찰로 돌아가는 돌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다.

국외소재문화유산 특별 공개 다시 살려낸 그림 속 희망

국외에 있는 한국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포틀랜드미술관의 〈구운몽도 병풍〉과 덴버미술관의 〈백동자도 병풍〉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고 제 모습을 잃어 현지에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전문가 가 드물어 손상된 문화유산을 전통 방식으로 보존·복원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국외 박물관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 보존·복원 및 활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내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새롭게 단장한 〈구운몽도 병풍〉과 〈백동자도 병풍〉이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왕실에서 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사랑받았던 우리 옛 그림의 아름다움을 한껏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문화유산이 국외에서도 그 빛을 발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매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Cultural Heritage from Overseas Museum Collections Hopes and Dreams Revealed Inside Restored Paintings

Korean cultural heritage items housed overseas have been helping to raise global awareness about Korea's historical and cultural excellence. The Portland Art Museum (in the US) has custody of a ten-panel folding screen mounted with a series of paintings on The Cloud Dream of the Nine motif, while the Denver Art Museum (also in the US) possesses a folding screen that features paintings collectively entitled One Hundred Boys at Play. These artworks had deteriorated over time and lost their previous visual appeal, making them difficult to display. Fortunately, the two folding screens underwent rigorous conservation work in Korea, bringing back their original appearance.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s now showing them

in a special exhibition prior to their return to the United States. You now have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beauty of two sets of old Korean paintings loved in traditional times by royal family members and commoners alike. We hope they will now serve as shining example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 for foreign audiences to enjoy.

2025. 6. 25.[÷] ~ 7. 20.⁹

백동자도 병풍 百童子圖 屛風 One Hundred Boys at Play Folding Screen

> 조선, 19~20세기, 비단에 채색 (각폭) 141.5×34.5cm (그림) 98.0×30.4cm 덴버미술관Denver Art Museum

여러 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하며 평화롭게 노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백百'은 '풍족하고 많다'는 의미이며, 장군놀이, 닭싸움, 원숭이놀이, 매화 따기 등 다양한 놀이를 하는 천진무구한 아이들의 모습에는 아들을 낳기 바라는 소망과 관직등용, 입신 출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백동자도는 조선 후기 왕실의 혼례와 궁중 연향에 두루 사용되었고, 민간에도 전해져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숭이놀이



















매화 따기







관리 행차놀이











장군놀이









잠자리잡기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립고궁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